

실업계 고등학교¹⁾ 교사의 '3월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이상철(李相哲)* · 주철안(朱哲安)**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삶과 실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3월은 첫째, 동료교사관계 측면에서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사이의 낯설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형성 노력을 하는 시기이며, 둘째, 학생관계에서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서의 낮은 부담을 느끼는 시기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업무관계에서는 학교교육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수선�함을 경험하는 동시에 업무에 협조하는 시기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를 나타내 주는 전체적인 주제는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사이의 낯설음과 관계형성 노력',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서의 낮은 부담',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어수선�함과 업무에 협조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 주요어 : 교직문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7. 4. 12)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용어 사용과 의미 이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부산대학교 교수

I. 서론

Lortie(1975)는 교직문화²⁾를 ‘교직에서 발견되는 특성들의 집합체, 즉 교사들 간에 강하게 자리 잡은 성향과 감정 및 사고방식들의 특수한 조합’으로 정의하면서, 따라서 교직문화를 교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창(窓)으로 보았다. 교육의 핵심 주체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김병찬, 2003). 나아가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요인인 교직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다.

교육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Waller가 1932년에 발표한 「교직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teaching)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인간생활의 연구관점에서 학교내외의 구조와 문화를 상세히 기술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교직문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자들이 밝혀낸 교직문화의 특징으로는, 개인주의(Dreeben, 1973; Lortie, 1975; 황기우, 1992) 또는 상호불간섭주의(이정선, 2000), 행정 업무중심 또는 형식주의(김병찬, 2003), 보수주의(Lortie, 1975; 박병량·주철안, 2005),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Dreeben, 1973; Lortie, 1975; 이정선, 2000), 교사들의 참여의식 부족(Goodlad, 1982; Boyer, 1983; Blumberg, 1987)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직문화 탐색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치우쳐 있으며(오영재·정지선, 2006), 고등학교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도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이인효, 1990; 김철훈, 1999; 황석도, 2002; 정병호, 2006)로 편중되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로는 오영재·정지선(2006)의 연구만 들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다. 오영재·정지선(2006)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교사들의 문화적 원리로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낮지만 재능을 키워주고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아이들(학생관), 기술교육과 대학준비 교육 사이의 정체성 혼란(교육목표), 학생통제와 인간적 감화의 병행(생활지도), 소홀한 교실수업 경향에 대한 비판의식 그러나 순응적으로 동조하기(교실수업), 강한 친목적 유대를 중시하며 편하게 지내기(동료교사관계), 일정한 거리 유지하다 필요할 때 찾기(행정가와의 관계), 만나서 좋을 것이 별로 없어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학부모와의 관계), 전문교과업무 우선하며 기타 행정업무 형식

2) 다수의 연구논문들이 교사들의 문화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교사문화’ 또는 ‘교직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교직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구성원들의 문화보다는 구성원들이 속한 특정 직업의 전체문화 즉 직업문화의 개념으로 교직문화가 널리 사용된다’는 이정선(2000: 56-57)의 교직문화에 대한 견해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탐색 방향이 근접하므로 ‘교직문화’ 개념을 사용한다.

적으로 하기(행정업무) 등을 제시하였다.

오영재·정지선(2006)이 밝혀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관한 문화적 원리인 '기술교육과 대학준비 교육 사이의 정체성 혼란'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의 3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보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006년 현재 학생들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반면 순수 취업률은 20% 남짓에 그치고 있다.³⁾ 그리고 대학설립으로 인한 정원 증가 및 내신 성적만으로 진학하는 대학입학 수시모집 정원의 확대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다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는 상관없이 손쉽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하여 진학이나 학업성적에 대한 관심은 교사와 학생 모두 낮은 실정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위주로 한 취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도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교직생활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통해 교직사회를 탐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3월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삶과 행동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들의 3월에 관한 연구로서, 김영숙(1995)은 초등학교 교사의 1년 교육행위를 월별로 분석하여 3월은 '시작의 달'로서 교육계획 수립, 학급경영계획 수립,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달로 보았다. 김영숙·정정훈(2003)은 초등학교 신입교사가 겪는 3월에 초점을 맞추어 초임 교사에게 3월은 '잔인한 달'로서 부임하는 첫날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선배교사들의 조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배교사들과 똑 같은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허둥대고 고민하며,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달로 정의하였다. 김은희(2006)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년 초 교직생활 연구에서 3월을 만남의 달, 시작의 달, 몸살의 달로 범주화하였다. 만남의 달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으로는 '행복한 만남과 좌절된 만남', '성공하는 만남과 실패하는 만남', '준비 없는 만남과 운명적인 만남', 시작의 달에는 '관례적인 행사', '조직구성과 허망한 현실', '계획을 위한 계획과 연구를 위한 연구'와 같이 형식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며, 몸살의 달에는 '수업 및 행정업무', '환경정리'로 인해 '새 학년 병'을 앓으며 정신없는 3월을 보내는 문화적 원리가 나타난다고 정리하였다. 3월이 아닌 다른 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김영태(2001)는 중학교 교사들의 2월은 업무, 학생

3)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2006년도 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였다.

관계, 동료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며, 학급경영과 교과지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전력수입’에 고심하는 모습을 통해 2월 교사생활 실태의 주제어로 ‘분주하고, 피곤하며, 슬픈’으로 표현하였다. 이순옥(2002)은 중학교 교사들의 12월의 교직문화 연구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결같이 업무가 많으며, 그 와중에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까지 신경을 쓰려고 하니 매우 피곤하며, 고달프고, 다른 어느 달보다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짜증’이 많은 달이면서도 교사 스스로 ‘무기력’을 느끼는 달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3월을 보내는가?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일상적 삶을 드러내는 교직문화는, 학사운영 주기인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학교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3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이르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3월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달로서 학교 차원에서는 1년의 계획을 잡는 시기이며, 교사들은 새로운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달이기도 하다. ‘3월을 잘 보내면 1년이 편하다’는 교직사회의 격언처럼 3월은 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의 교직문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월의 교직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교사들의 의식과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교직활동의 중핵을 이루는 동료교사관계, 학생관계, 업무관계를 중심으로 3월에 나타나는 교직문화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 즉,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삶과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립학교인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가칭)에 근무하는 10명의 교사들이다. 제보 교사들이 근무하는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는 1938년 개교하였고, 2006학년도 현재 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전자계산기과, 전산응용기계과, 자동차과 등 5개 과 45학급이며 재학생은 1,484명이다. 전자계열과 기계계열로 나누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표 1>에서 정리하였다.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내 실업계 고등학교 중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한다.

<표 1> 2006학년도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학업성취도 수준

계열 \ 학업성취도	~60%	60~65%	65~70%	70~75%	75~80%	계(명)
전자계열	37	26	79	136	72	350
기계계열	18	11	39	57	0	125
계	55	37	118	193	72	475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의 교직원현황은 <표 2>와 같다. 교장과 교감 2명을 포함하여 총 102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인문교과는 여교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교과는 남교사의 비중이 높고, 인문교과는 30~40대 연령이 중심이나 전문교과는 40~50대 교사의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표 2>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직원현황

구분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문교과	15	33	5	18	19	6
전문교과	42	9	7	8	16	20
계	57	42	12	26	35	26

학교건물은 1~3학년의 모든 학급이 위치한 본관과 6개의 실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 2층 교무실에는 학교전체 학사를 운영하는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인문사회국제교육부, 학년부가 있고, 본관 1층에 직업기술교육부, 2층에 교무실과 독립된 실을 사용하는 생활지도부와 진로상담부가 있다. 각 실습 동에는 전자정보교육부, 자동차교육부, 전산응용기계교육부, 정보통신교육부, 자연과학교육부, 전자계산기교육부, 교육정보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목적강당에는 예체능교육부가 있다. 총 17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무실에 있는 4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각기 독립된 실이나 다른 건물로 흩어져 있어 교사들 사이의 생활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자는 3월의 교직원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근무경험이 많은 교사, 연구 참여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오래된 교사, 인문교과 교사, 전문교과 교사, 전입교사 등 다양한 교사를 선정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자의 인적 사항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심층면담자의 인적 사항

이름(가명)	성별	나이	과+목	본교근무 기간	면담년도	비고
김노련	남	50대	전자	5년	2005	2004학년도 교무부장
신원만	남	50대	통신	6년	2005	2학년 부장
김원칙	남	40대	전자	5년	2005	교육정보부장
황열정	남	40대	수학	전입교사	2005	1학년 담임
백순수	여	30대	국어	전입교사	2005	2학년 담임
이준수	남	40대	통신	5년	2006	정보통신부장, 3학년 담임
이미소	여	40대	국어	1년	2006	2학년 부장
곽선배	남	40대	전자	전입교사	2006	3학년 담임

2.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05년 3월과 2006년 3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5년 3월에는 심층면담 및 3월과 관련된 업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2005년의 면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추가 심층면담 및 3월 관련 업무 전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면담방법 및 질문지 작성

연구자는 심층면담 방법으로 피면담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을 사용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자와 피면담자간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영역과 내용은 교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김영태, 2001; 김은희, 2006; 오영재·정지선, 2006)를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동료교사 관계, 학생관계, 업무관계, 전체느낌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총 면담 시간은 교사 1명당 평균 6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각 면담은 모두 노트 기록과 녹음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의 각 영역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심층면담 질문지 개요

영역	내용
동료교사 관계	· 3월 중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방법 및 어려움 · 3월 중 전입교사 및 기존교사와의 관계 형성 방법 및 어려움
학생관계	· 학급 : 3월 중 학급경영 방법,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방법 및 어려움 · 수업 : 3월 중 수업지도 방법,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방법 및 어려움
업무관계	· 3월 중 업무 수행 및 어려움
전체느낌	· 교사에게 3월이 갖는 의미 · 3월 중 교사의 삶

4. 자료 분석 및 타당화 작업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인 전사, 주제별 코딩, 주제 생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사 단계에서는, 심층 면담 내용을 요약한 노트와 음성 녹음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주제별 코딩 단계에서는, 전사된 내용 및 수집된 문서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동료교사관계, 학생관계, 업무관계 영역별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생성 단계에서는, 주제별 코딩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읽기와 분석을 통해 3월의 교직문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였다. 새롭게 생성된 주제로는 동료교사관계 영역에서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간 낯설음과 관계형성 노력'이 있으며, 학생관계 영역에서는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서의 낮은 부담'이 있었고,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학교계획수립을 위한 어수선했음과 업무에 협조하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member checking)과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즉,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분석한 뒤 나온 연구 결과를 면담을 실시한 교사들과 서로 검토하여 연구자의 적절한 해석 여부를 평가받은 것이다. 또한 교직문화 및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육학전공 교수 2인에게 본 연구결과를 의뢰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Ⅲ. 3월의 교직문화 분석

본 연구의 주제인 3월의 교직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영역에 따라 동료교사관계, 학생관계, 업무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료교사관계 :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간 낯설음과 관계형성 노력

실업계 고등학교의 3월의 교직문화 중 동료 교사들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간 관계형성으로,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사이의 낯설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 새로 전입해오는 인문교과 교사는 교사들 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고립감이 먼저 밀려오지요. 실업계는 처음이라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여러 학교들을 거치는 동안 교육관이 다른 교사들과 갈등과 타협을 통해 관계를 맺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다시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갈등 없이 지혜롭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황열정 교사).

전입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우리학교는 특히 담임 등 학교사무분장 발표가 개학식 날인 3월 2일에 있어 전입해 오자마자 담임, 업무, 교무실 자리를 배정받고 특별한 안내 등이 없기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기존교사들이 전입교사들을 이끌어주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터득하고, 눈치껏 모르면 물어보고 하면서 스스로 적응해 나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미소 교사).

위 교사들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입해오는 인문교과 교사에게, 3월은 기존 학교에서 맺었던 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교사를 만나 전입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문화, 더 구체적으로는 낯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밝혀졌다. 특히 면담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는 학년말 방학⁴⁾ 중에 하루를 출근하여 업무와 담임 등 학교사무분장 발표를 한 다음 3월을 준비하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관례적으로 학년말 방학 중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개학일인 3월 2일에 학교 내 인사발표를 한다. 이러한 관행은 교사들이 학년말 방학 중에 등교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전입교사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온 전문교과 교사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인문교과 교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신의 직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년말 방학 중에 있는 학교사무분장 발표일에 기존교사와 전입 교사간 인사 및 교사들 간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사들 상호간에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교사들이 동료성을 형성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같은 직장에서 아는 사람은 있어도 생각을 나누는 동료교사가 없다’는 Silver(1973, 이정선 재인용, 2000: 65)의 말처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은 4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발령 첫해는 서로 탐색하여 적응하는 시기, 2~3년은 깊이 있게 사귀는 시기, 마지막 해는 정리하는 시기로 이러한 과정을 발령받는 학교마다 되풀이한다. 따라서 교사들 관계가 대부분 피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은 드물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입오는 인문교과 교사들은 동료교사들의 조언과 안내 부족으로 Lortie(1975)가 지적한 것처럼 ‘가라앉느냐 헤엄치느냐’를 혼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으로 봄방학, 춘계방학이라는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학년말 방학이다.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입해온 인문교과 교사들이 겪는 낯설음과는 달리 전입 전문교과 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관계형성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교과 교사들은 부산광역시내 공립실업계고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다리만 걸치면 아는 교사들이라 관계형성에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인문교과 교사들은 처음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교사는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먼저 접근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상대 여교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변 교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3월에 있는 부서별, 교과별, 학년별 모임이나 회의는 전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교사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3월에는 B대, C대, D대 등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전입교사 환영모임을 갖는데 걸음로는 친목 차원에 그친다고 하지만 파벌로 의식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우리학교만의 독특한 교직원문화의 한 양태라고 볼 수 있지요(신원만 교사).

학교이동에 따른 어색함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전보 때는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3-4월 동안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우리학교에 적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전자이기 때문에 전문교과 선생님들이랑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 등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어 교사들과 어울리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라는 동류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곽선배 교사).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동료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전문교과 교사와 인문교과 교사의 동료교사 관계형성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공업계 전문교사가 전보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내 공립실업계고가 경남공고, 부산공고, 서부산공고, 자동차공고, 전자공고 등 다섯 개 학교에 한정되기 때문에 발령받은 지 10년 정도만 지나면 두세 학교를 순환하므로 대부분 교사들은 서로를 잘 아는 편이며 비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친밀도가 높다. 따라서 공업계 전입교사는 같은 학교에 두 번째 발령받는 경우도 있고, 아는 교사도 많아서 적응하는데의 어려움은 인문교과 교사보다 적다. 또한 실업계고만 이동하는 전문교과 교사는 대부분 다음 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는 오영재·정지선(2006)이 밝혀낸 동료교사관계인 '강한 친목적인 유대를 중시하며 편하게 지내기'와 연결된다. 반면에 인문교과는 부산광역시내 공립고등학교가 60여개 정도로 많아 교사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아는 사람이 적을뿐더러 다음 학교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낮아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노력을 전문교과 교사에 비해 적게 하는 편이다.

또한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의 교직원문화 중 특이한 점은 대학동문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대학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광역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재직 교사들 중 대다수가 지역대학인

B대 사범대학 출신들이기 때문에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반면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 부산광역시내 공업계 실업고등학교는 B대, C대, D대 등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B대는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사범대학 출신 인문교과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느슨하게 결집되어 있으며, C대는 공업계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공업교육학부가 있는 전국유일의 대학인 관계로 소수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높은 결속력을 보인다. D대는 사립대학으로서 오랫동안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배출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많고 끈끈하게 결집되어 있다. 대학동문회는 전입교사들의 학교 적응과 교사들 간 친목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신 교사가 지적인 것처럼 동문선후배 교사에 대한 '선배'와 '후배', '형님'과 '동생'과 같은 호칭 사용하기와 동문출신 교사 챙기기 등과 같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동문 교사들 간 강한 결속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및 기타 대학 출신 교사들의 소외감 유발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동료교사관계는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간의 낯설음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서로 간의 관계형성을 시도하는 시기로 밝혀졌다. 특히 같은 전입교사라도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는 낯설음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인문교과 전입교사는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맺어놓은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는 낯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의하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고립감도 많이 느낀다. 기존 전문교과 교사도 전입 인문교과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기이다. 나아가 대학동문회의 존재도 실업계 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2. 학생관계 :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서의 낮은 부담

3월의 교사-학생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3월이 가지는 새 출발의 이미지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긴장감을 느끼는 시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학생관계를 학급과 수업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긴장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급 영역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3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수업 영역에서는 3월이지만 수업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을 적게 하고 있었다.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3월을 보내고 있으며,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엄하게 대하는 통제적 학급경영과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자율적 학급경영 전략을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학급 운영은 초반에 엄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신원만 교사).

발령 초기에는 실업계 학생들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는데 학생들이 빨리 풀어져 나중에 힘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3월 한 달은 군대 훈련소 교관이 처음에는 엄숙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다가 끝날 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3월을 군기확립기간으로 해서 담임학급이나 수업 할 때 웃지 않고 표정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뉘를 다하여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근면성실하기, 인간됨됨이 등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학기 중간 중간에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다(이준수 교사).

3월 초 학급운영을 엄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조례, 종례를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지금까지도 거의 빼먹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학생들을 잡으려는 전략보다는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 하면 3월에 강하게 잡는 것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잡는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하는 교사들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지각하지 않기, 남의 물건 건드리지 않기, 흡연금지 등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백순수 교사).

이준수 교사가 3월을 '군기확립기간'으로 정하여 학급학생을 지도하는 것과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 교사들이 3월에는 기선제압을 위해 학생들을 강하게 지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다른 두 교사는 통제중심의 엄격한 전략보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합리적 전략을 3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통제중심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급경영 전략과 자율중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교사들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교사들과 학생들의 세대 차이로 인해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부담을 가진 교사들이 초반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지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급경영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3월에는 통제중심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서서히 느슨하게 풀어주는 학생지도 전략을 사용한 교사는 훈육효과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3월부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한 두 교사는 훈육에 실패하거나 통제중심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이지만 합리적 훈육방식보다 강압적 훈육방식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지도에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 영역에서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은 3월이지만 수업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을 적게 하고 있으며, 진학교육에 대해서도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실업계고 학생에 비해 착하고 온순한 편입니다. 3월에만 특별히 느끼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 부담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더 잘 가르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3월을 임합니다. 수업전략은 특별한 것은 없고 학생들의 평소 수업 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고 강조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1년간 지속합니다(김원칙 교사).

초임교사 시절 다른 선배교사들이 3월 초에 학생들을 엄하게 다루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법을 모방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으나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즉 일관성입니다. 우리학교 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으나, 남학생들이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몇 가지 세우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남학생이고 실업계 학생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백순수 교사).

위 두 교사들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해마다 새로 대하기 때문에 3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업에 대하여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올해는 조금 더 잘 가르쳐야지'하는 생각을 갖고 3월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전략을 세워서 첫 수업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보이는 수업에 대한 소홀한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심이 적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월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교육에 대하여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에 관한 문화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진학을 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2년제 대학 연계전형이나 실업계 전형을 통해 손쉽게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원문화 연구(이인효, 1990; 김철훈, 1999)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원리인 입시위주의 '학력신장식 수업' 강조와는 구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학급 영역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3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수업 영역에서는 3월이지만 수업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경영에 있어서도 통제적 학급경영과 합리적 학급경영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급변하는 신세대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강한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로부터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것보다 우선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사들의 판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월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교육에 대하여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문

계 고등학교 교직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원리인 입시위주의 '학력신장식 수업' 강조와는 차이가 있다.

3. 업무관계 :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어수선함과 업무에 협조하기

3월은 새 학년의 출발점으로 2월말에 결정된 학사운영 연간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즉 학교교육 계획서를 완성하는 시기이다. 학교교육 계획서를 3월말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각부 행사계획 수립, 시간표 작성, 수행평가를 포함한 연간 평가계획 수립, 클럽 활동 부서 결정 및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원래 학교의 모든 연간 교육계획은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에 마무리되고 3월부터는 신입생을 포함하여 새로 진급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교사들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학교계획이 늦게 수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면도 있다.

먼저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의 3월에 이루어지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3월중 업무계획은 <표 5>, <표 6>과 같다. 참고로 교무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열린다.

<표 5> 2005년 3월중 업무 계획

월일	요일	구분	업무 내용
3월 2일	수	공통업무	시업식 운영계획, 2교시 운동장 시업식, 부서별 협의회 개최, 학교운영유인물 6종 배부, 교원실태조사서 작성, 교과주임추천, 교사 비상연락망 확인, 2004년 공문서철 결재, 3월 행사계획표 제출, 입학식 예고
		담임업무	1교시 대청소, 담임교사 교실 책걸상, 칠판상태, 신발장, 청소용구 등 확인, 개학상황 보고
3월 3일	목	공통업무	일과운영계획, 입학식, 교육계획서 준비, 클럽활동 희망부서 조사, 교과협의회 실시
		담임업무	1학년 교과서 배부, 청소용구부족분 추가 조사, 특별구역배당표 확인, 중식지원대상자 선정
3월 7일	월	공통업무	교원위원선출위원회조직, 학부모회개회예고, 1·2학년 학력진단평가실시, 부서 자체연수계획서제출, 공개수업계획서제출, 네트워크 연수,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신청, 인사협의회 조직, 부서협의회실시
		담임업무	학생실태조사 제출, 휴업 토요일 등교회망자 조사제출, 학급조직표작성제출, 비상연락망 및 사진첩작성 제출, 청소용구 배정
3월 10일	목	공통업무	급식소위원회 실시, 연간실험실습계획서 제출, 교과협의회 실시
		담임업무	건강이상자 조사, 환경미화심사예고, 마룻바닥청소요령

3월 14일	월	공통업무	특수학급직원연수, 학부모회, 담임장학예고, 기능사 실시시험, 구입도서추천서 작성, 친목회칙 개정 협의
		담임업무	클럽활동 인원조정, 3학년 특기적성교육실시
3월 17일	목	공통업무	교직원차량번호확인, 인사위원회실시, 기자재 사후관리카드 사진 촬영, 자격검정일정홍보, 수업발표교사선정
		담임업무	출석부표기방법 안내, 학비감면안내
3월 21일	월	공통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예고, 실험실습재료신청
		담임업무	학교폭력예방 특강, 1학년 특기적성교육실시, 3학년 EBS영상교육실시
3월 24일	목	공통업무	주차 안내, 실습장 기자재관리 안내, 친목회운영위원회의
		담임업무	3학년 삼성코닝 취업의뢰, 2학년 특기적성교육실시
3월 28일	월	공통업무	교내 시험 2인 감독제 실시
		담임업무	대청소 및 환경미화 심사, 클럽활동 부서 학생입력, 모의고사 예고, 교내 과학경진대회예고
3월 31일	목	공통업무	없음
		담임업무	출석부 관리, 출석통계

<표 6> 2006년 3월중 업무 계획

월일	요일	구분	업무 내용
3월 2일	목	공통업무	2교시 개학식, 부서별 협의회 실시, 학교운영유인물 배부, 교원실태조사서 작성 및 제출, 교과주임교사 추천, 비상연락망 확인, 2005년 공문서철 결재, 3월 월중행사계획 제출, 입학식 예고
		담임업무	1교시 담임시간 및 대청소, 담임교사 확인사항(교실 책걸상 수, 학급 팻말, 칠판상태, 교실바닥, 사물함 등), 개학상황 보고, 1학년 담임 모임
3월 6일	월	공통업무	친목회장 선출, 공문서철 처리요령 연수, 성적관리위원회 개최, 연간계획서(교과별 평가계획,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계획서, 자체연수계획) 제출
		담임업무	책걸상 및 사물함 실명제 실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3월 9일	목	공통업무	교원위원 선출 관련 회의, 각부 인사위원 추천, 친절한 전화받기, 계발활동 희망부서 신청, 대출도서 반납
		담임업무	주 5일제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증 ID카드 사진 촬영, 교단신진화기자재 관리 학생 추천, 중식지원대상자 추천, 학생건강조사 실시
3월 13일	월	공통업무	연간실험실습계획서 제출, 재량활동 수업 관련 회의, 학교종합감사 예고
		담임업무	집단생활지도 실시 계획, 교칙위반자 지도, 2·3학년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환경미화 예고

3월 16일	목	공통업무	담임장학 실시
		담임업무	학부모회의 예고, 3학년 진로조사서 발송, 클럽활동부서 조직,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 안내, 금강봉사대 추천, 학생두발 및 복장 단정 지도
3월 20일	월	공통업무	각부 교육계획서 제출, 학교폭력주방교육실시
		담임업무	23학년 결핵검진, 매주 수요일 좌우명 방송 실시
3월 23일	목	공통업무	없음
		담임업무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학생 명단 제출, 삼성전자 응시 여학생 면접지도
3월 27일	월	공통업무	실험·실습시설·설비현황 제출
		담임업무	계발활동 조직 확정, 교내과학경진대회 예고
3월 30일	목	공통업무	찾아가는 혁신연수 실시, 환경미화심사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담임업무	3월 출결사항 입력, 학생증 ID카드 이상유무 확인, 비상연락망 작성, 1학년 인성검사 예고, 3학년 EBS 수강 희망자 예비 모임

위에서 살펴보듯이 푸른 전자 공업고등학교의 3월중 업무계획은 모임이 있는 날마다 10개 이상의 업무가 전달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교육계획 세부내용 수립에 관한 공통 업무와 담임업무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3월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본격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3월중에 완성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한 계획보다는 지난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학교 대부분의 행사에 교사들이 참석하거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학교운영 및 각종 계획 수립과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3월 업무관계는 초등학교의 학년초 연구(김영숙, 1995; 김은희, 2006)에서 나타나는 '각종 형식적 계획수립'이라는 문화적 원리와 연결된다. 반면에 공·사립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를 비교한 정병호(2006)의 연구에서 사립인문계 고등학교는 2월 말부터 공립인문계 고등학교는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입시지도를 시작한다고 밝혀 학교 연간교육계획 수립과 같은 학교업무를 중요하게 다루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입시에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학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 지향적 분위기로 인하여 학교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월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업무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김은희, 2006)'는 말처럼 교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10개가 넘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담임교사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하는 동시에 하루 3~4시간 정도의 교과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학교로 왔는데 학교에서의 3월은 바쁘기는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님

니다. 그런데 담임과 비담임의 3월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담임들은 각종 서류작성, 자료제출 등으로 쉴 틈이 없는데, 비담임은 상대적으로 정말 한가하지요. 학교구조가 점점 담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담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실업계 학생들은 지도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2년 담임하면 1년은 쉬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학교는 그게 없습니다(이준수 교사).

수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교사들은 각종 자료제출, 계획 수립 등으로 어수선�함을 느끼며 3월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업무 처리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시기가 3월이기도 하다. 이러한 3월의 업무문화에 대한 지난 2년간 교무부장을 역임한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3월은 학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말의 학사운영계획, 연간계획은 전체적인 틀이고 3월은 학교교육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교육계획서는 작년 계획을 참고하지만 시행지침의 변경이나 관리자의 생각을 고려하여 일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잘 보내려면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서를 통해 결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있을 사항을 참고하여 변경하여 결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교사들도 3월에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업무에 매우 협조적입니다(김노련 교사).

김 교사는 2년 동안 교무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3월에 학교교육을 완성해야 하는 제도라면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일을 잘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3월이 바쁘기는 하지만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교사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편이다. 다 같이 바쁜 시기에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협조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3월의 업무문화에 대하여 신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간표 작성, 학교교육계획 세부수립 등으로 3월 중순까지는 어수선퍍니다. 학교계획이 늦게 수립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3월에는 학생들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신경을 조금이라도 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학교는 본격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월은 긴장과 어수선퍍이 교차하는 시기라고 봅니다(신원만 교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3월의 업무문화는 1년 학교교육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계획서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어수선퍍과 개인적으로 좀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협조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교무부장의 지휘아래 모든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진학지도라는 뚜렷한 목표와 대입성적이라는 결과로 평가받는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모호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수선했음은 통상 3월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교육계획서 초안이 완성되는 3월 15일 정도를 전환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감을 알 수 있다. 3월 중순 이전에 각종 교육계획 자료 제출 등으로 정신없던 교사들도 이후에는 교실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IV. 결론

이상으로 학교의 1년 중 출발점에 해당하는 3월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직문화를 동료교사관계, 학생관계, 업무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교직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 중 동료교사관계는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사이의 낯설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형성 노력을 하는 시기로 밝혀졌다. 특히 인문교과 전입교사는 전임 근무학교에서 형성해 놓은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낯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을 느끼며, 기존 전문교과 교사도 전입 인문교과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간 낯설음이라는 문화적 특징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입해오는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의 학교 적응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과 대학동문회의 존재도 실업계 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문교과 교사들이 보이는 강한 동료성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영재·정지선(2006)이 밝혀낸 '강한 친목적인 유대를 중시하며 편하게 지내기'와 연결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 중 학생관계는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서의 낮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급경영에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통제중심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자율중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월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이나 진학교육에 대한 특별한 언

급이 없는 측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이인효, 1990; 김철훈, 1999)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원리인 입시위주의 '학력신장식 수업' 강조라는 문화적 특징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 중 업무관계는 학교교육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수선향과 교사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수궁하며 업무에 협조하는 시기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어수선향은 학교교육계획서 초안이 완성되는 3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사라지고 학교는 빠르게 안정기에 접어들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클럽활동, 특기적성교육, 환경미화 등 각 부서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교사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지향적 분위기와 비교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 3월의 교직문화를 나타내 주는 전체적인 주제어는 '인문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의 낯설음과 관계형성 노력', '학급에서의 높은 긴장과 수업에 대한 낮은 부담',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어수선향과 업무에 협조하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부수적인 문화적 특징으로 '대학동문회의 존재', '통제적 학급경영방식과 합리적 학급경영방식의 혼재', '진학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징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3월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원리도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3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도 중첩되어 드러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탐색될 수 있는 공통적인 문화적 원리도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제한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에게 있어 1년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3월은 교직문화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3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1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교직문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에 스며들어 있는 주요한 특징들과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호작용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밝혀내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중 공업계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계열, 농업계열, 수산 및 해양계열 등 다양한 실업계 고등학교 내 다른 계열의 교직문화로 일반화되지는 못한다. 둘째, 연구대상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는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여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교사들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3월 교직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폭을 다양한 계열에 근무하는 교사

들로 넓히고 연구방법도 기존 심층면담에 참여관찰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3월 교직원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원전보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순환근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교사들에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생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4년 순환근무 기간은 첫째 적용기간, 2~3년째 열성적 근무, 마지막 해 정리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은 교사가 해당 학교에 정을 붙이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형성 및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교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서라도 순환 근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2년 정도 연장하는 전보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들의 정기인사를 앞당겨야 한다. 학교의 연간교육계획 수립은 모든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일주일이면 충분히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계획성 있는 학교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교사들 간의 동료성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2월 중순경에 발표되어 3월 1일자로 이동이 되는 교직원 인사를 2월 1일자로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여, 신학년도 교직원이 구성된 상태에서 학교 내 인사와 학교교육계획 수립 등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에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병성(2005). *교육과 사회*. 서울 : 학지사.
- 김병찬(2003).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1), 1-27.
- 김영숙(1995).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해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pp. 135-170.
- _____(2005). *네 학교 이야기-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 김영천, 정정훈(2003). 잔인한 3월: 한국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3월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김영천 (2005). *별이 빛나는 밤2*. 서울 : 문음사.
- 김영태(2001). '2월의 교직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1), 45-81.
- 김은희(2006). 초등학교 교사의 학년초 교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철훈(1999). 인문계 고등학교 문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_____(2001). *한국 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서울 : 문음사.
- 김풍삼(1992). 한국 교원문화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희규(2003). 학습조직 육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전략. *교직문화 변화를 위한 실천 사례 및 지원과제 워크숍 자료집 RM 2003-39*. 한국교육개발원. 141-160.
- 류방란, 이해영(2002).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연구보고 RR 2002-5.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량, 주철안(2005). *학교 · 학급경영*. 서울 : 학지사.
- 박영숙 외(2003).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직문화 변화 전략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2003-9. 한국교육개발원.
- 배은주(1993). 중학교에서의 학생통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영재, 정지선(2006).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1), 69-96.
- 이순옥(2002). '12월의 교직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이용숙, 김영천 편(200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인효(1990).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인효 외 편역(1995). *교육과 사회*.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정선(2000).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3(3), 51-87.
- _____(2002). *초등학교 문화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이해영, 류방란, 윤여각(2001).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연구보고 RR 2001-4. 한국교육개발원.
- 전영국, 양은주, 허희옥(2002).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 양상에 대한 질적

- 연구. 교육학연구. 40(5), 297-320.
- 정병호(2006). 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하나고와 두나고를 통해 본 문화기술적 연구 - .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진동섭(2003). 교직사회: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 양서원.
- 황기우(1992).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해석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황석도(2002).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Blumberg, A.(1987). A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local, state, and federal mandates on supervisory practices. Annual conference of the Council of Professors of Instructional Supervision, Philadelphia, November.
- Boyer, E. L.(1983). *High School: A report on secondary education in America*. New York : Harper & Row.
- Dreeben, R.(1973). The school as a workplace. In Travers, R. M.(Ed.),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 Rand McNally, pp. 450-473.
- Goodlad, J. I.(1982). A study of schooling. Paper presented to the Stanford Teacher Education Project, Stanford, Calif., January 28.
- Jackson, P. W.(1968). *Life in the Classroom*.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차경수 옮김(1978). *아동의 교실생활*. 서울: 배영사.
- Lortie, D.(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진동섭 옮김(1993). *교직사회: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 Waller, W.(1932). *The Sociology of Teac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 논문접수 2007년 5월 14일 / 1차 심사 2007년 7월 14일 / 2차 심사 2007년 8월 14일

*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학 및 교육사회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사립학교법 쟁점에 대한 교사의 태도 분석',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등이 있다.

* e-mail: lsc2203@hanmail.net

* 주철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Harvard 대학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학교·학급경영(공저)', '교육리더십(공저)', '학교공동체만들기(역서)' 등이 있다.

* e-mail: cajoo@pusan.ac.kr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Teachers Culture in March’ of Vocational Highschool Teachers

Lee, SangChul* · Joo, Chu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ir lives and realities through the deep interviews by being focused in March when a new grade was started on teachers culture of the teachers, who were working for the vocational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colleague teachers in the teachers culture among vocational highschool teachers in March showed the effort of Relationship-making each other carefully to relax the strange between the humanistic subject teacher and the technical subject teacher.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students in the teachers culture among vocational highschool teachers in March showed the time to get high tension from classroom and low burden from teaching. Third, the duty relationship in the teachers culture among vocational highschool teachers in March showed the time to be in disorder from the course completing the detailed plan of the school and to cooperate for their duty. Therefore, the theme words are able to be expressed as ‘being strange and effort of Relationship-making between the technical subject teacher and the human subject teacher’, ‘high tension from the classroom and low burden from the teaching’ and ‘disorder from the course completing the detailed plan of the school and to cooperate for their duty’.

Key words: Teachers Culture,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 Doctor’s Co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